야곱 오버의 이유, 패스 오버

(창33:1~11)

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야곱 오버의 이유, 패스 오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야곱 오버의 이유, 패스 오버'
오버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준치나 예상치보다 과장된 행동을 할 때에 오버한다고 합니다. Passover라는 것은 붙여 쓰면 고유명사로서 유월절을 의미이고, 떨어뜨려서 Pass over라고 하면 지나친다는 뜻이 됩니다.
유월절의 뜻에는 이미 지나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을 죽음의 기운이 뛰어넘어 지나쳐가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유월(逾越)이라는 말 자체도 뛰어 넘는다는 말이고 패스 오버는 지나친다,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오버합니다. 그 이유가 패스 오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 할 때에 굉장한 일은 아니지만, 목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돌보다가 교회가 마음에 안 맞거나, 목사가 마음에 안 맞고 해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집사님이 있을 때에 구역장님이 구역을 담당하는 부 목사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부 목사님이 그 분을 찾아가서 심방하고 전화하고 그 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교회에 남아있도록 설득을 합니다. 설득이 잘 되면 그 선에서 끝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하

시거나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정 뭐하면 심방해주시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목회를 할 때에는 무조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전화를 해서 남게 되는 분들이 얼마 안 되고, 남아있게 되더라도 또 반드시 몇 개월 지나면 그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기어코 그 분들이 떠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떠난 분들 중에서는 1~2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돌아오더라도 일단은 떠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오버하는 것이고, 또 해도 소용없는데 전화를 한다면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오버라는 것이 뭡니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을 낭비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므로 마음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낭비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땅히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써야 될 일에 쓰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 기도에 지장이 있고 설교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얼마든지 큰 일로 확장되어서 결과로 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돈이 많이 벌리고 적게 벌리고, 자식이 문제고, 건강이 좋고 안 좋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대응은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인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 다 오버하는 것인데 오버하면 반드시 평크가 납니다.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어딘가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써야 될 일들에 구멍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드디어 나타나는데 오버합니다.
왜 오버하는지 내용을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얍복 강가에서의 씨름 이후에 그 정도의 불안은 아니지만, 완전히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11명의 자식들을 일렬로 줄을 세웁니다.
레아와 라헬의 여종인 실바와 빌하가 낳은 자식들을 어미와 함께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을 제일 마지막에 세우는데 여종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의 마음과 여종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물론 맨 앞에 야곱이 서지만, 여기서 이 고질적인 야곱의 자식에 대한 편애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향해 일곱 번 절을 하면서 나갑니다.
이 일곱 번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며 일곱 번을 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서가 저쪽에서 오는데 가령 50m쯤 남았다고 한다면, 에서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부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일어나서 앞으로 다가갑니다. 몇 걸음 다가가서 또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나서 다가가고 이렇게 일곱 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절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전쟁에서 완전히 진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이 승리의 행진을 하며 들어올 때에 그 왕을 맞으러 나가서 하는 절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는 절이 이런 절입니다. 일곱 번 절을 하면서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게 오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목을 어긋 맞추고 껴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야곱의 울음은 오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눈물의 이유가 형, 에서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 이 눈물의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소유를 상실하는 두려움에 쌓여있다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껴안고 목을 어긋 맞추면서 우니까, 그 순간에 소유의 상태가 불안의 상태에서 안전의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상태변화에 감동을 받은 것이지 에서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32:14-15절에 보면 “암 염소 이백이요 숫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숫양이 이십이요 / 젖 나는 낙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라고 나옵니다.
전체 가축 550마리를 네 떼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는데 에서는 그런 예물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준다고 했을 때 체면상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조금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줍니다. 이게 다 오버라는 것입니다.

왜 오버라고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간만에 만났으니 형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어떤 상황이 간과된 채로 이루어진 일이냐? 마하나임의 사건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 환영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스쳐지나갈 때에 그 이유는 싸우러 간 것입니다.

누구와 싸웠겠습니까?
에서와 싸워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퍅하게 하셨던 것처럼, 강퍅했던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셨는데 야곱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반가워서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에게 선물로 550 마리의 가축을 주는 것이 뭐가 어때요?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어요. 문제는 자식들을 편애하는 정도에 따라서 일렬로 세워놓은 것에 있습니다. 그 두 여종과 자식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처럼 의례 사회관습 상 서자에 대한 차별이 법칙처럼 정해져있던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을 때인데, 위험을 앞두고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물도 죽일까 두려워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진짜로 에서 형이 반가워서 준비한 선물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물로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의 성격을 바꾸었어도 됐을 테고, 이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버한 것입니다.
선물로 가축 550마리를 미리 보냈을 때에는 불안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 떼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정으로라도 좀 받아주시죠'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형에 대한 사랑이 아예 없어요.
이게 이런 한 사건으로 끝나면 좋은데, 일평생을 오버하게 됩니다.

왜 오버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 것인지 이미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시킨 그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물러졌으니 그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데 오버가 나타나고 맙니다. 자식들을 일렬로 세우면서 자식들의 마음에 못을 박을 필요가 없었어요.
누굴 더 사랑한다는 이 편애가 나중에는 집안에 풍파를 몰고 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패륜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다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나타나는 야곱의 오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물렀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오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패스 오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삽니다.
목회 하면서 전화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화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으면 오버한 것입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입니다. 해야 될 전화가 있고 하지 말았어야 될 전화도 있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시간을 오버하고 에너지를 오버합니다.
오버 타임, 오버 에너지, 오버 머니 하면서 돈도 쓸데없이 낭비합니다. 마음도 쓸데없이 써버리고 관심도 쓸데없이 오버합니다.
이 오버 된 관심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반발만 있을 뿐이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

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오버를 합니다.
모든 것이 오버가 되면 진짜 이 세상에서 드려야 될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관심에 신경을 못 쓰게 되면서, 진짜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패스오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장에서 얍복 강가에서 씨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며 이름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패스오버 하는 일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관공서에 가서 까다로운 공무원 앞에서 한 시간을 실랑이를 해서 기어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오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관공서 직원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다 명찰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저는 그 관공서에 가서 그 명찰에 있는 이름을 보거나 기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이 뭡니까?
밴쿠버에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한국유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방을 얻어야 하는데 혼자 얻는 것보다 둘이 얻습니다. 그런데 남자끼리 얻고 여자끼리 얻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살림도 같이 하고, 집세도 줄고, 외로움도 줄고 하는데 이 유학생들이 계약을 할 때에 상대방의 이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한답니다. 내 이름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한국에서 어떤 집안이고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묻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동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밴쿠버에서의 동거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전혀 남남이 되어버리는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밴쿠버에 있었던 시절을 내 인생에서 없었던 것으로 쳐버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의 이름도 서로 모르기로 하고 동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얍복 강으로부터 에서를 만나는 사건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절대 잃지 않게 하시려고 다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단지 야곱의 마음 하나만을 바라보시면서 야

곱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세우심으로 야곱의 마음을 벧엘로 돌려내십니다.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던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밧단아람으로 갈 때의 자기 인생의 본전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인생의 본전을 생각하니 본전을 빼면 자식들, 아내들, 많은 가축들과 재산이 순이익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이익을 유지시켜 주시려고 마하나임 군대를 먼저 보내셨고, 단지 바라시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서 본전과 순이익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포정의 칼놀림으로 예리하게 분리시키셔서 본전을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 부분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그것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 부분 안으로 하나님을 모셔 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쥐고 있는 소유 전체를 놓기를 바라셔서 씨름을 하셨고, 야곱은 에서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재산을 놓지 않으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하게 이 세상의 소유들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놓게 하시려면 놓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강압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니 더 많은 시간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자리에서 지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상황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소유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패스오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여자 애인을 남자가 '아가'라고 불러서 그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라는 말은 세상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두 남녀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아가라고 부를 때에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 때부터 알려져 있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이름이었고,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에는 '아가'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지나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지나쳐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서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대하게 될 때에 상황에 대해서 오버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오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다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에서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물러 놓으셨으므로 거기에 맞춰 가면 되는 것인데 왜 거기에 맞춰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패스 오버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지켜내고 그것을 더 증식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오버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패스 오버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때에 적절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냉대하고 적대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적대시하도록 하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든지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듯한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버합니다. 안 해도 될 전화를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안 해도 될 신경을 쓰고, 안 해도 될 돈을 써가면서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550마리 가축을 받아도 특별히 의미가 없는 마음 상태입니다.
사랑의 표시로 '형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반가워서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두려웠을 때의 준비한 550마리의 가축이 다 에서에게로 가버립니다.
그 까짓 것 가면 어떻고 안 가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불필요한 일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경 쓰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오버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로 여러분의 본전을 찾으세요. 십자가에 달려죽은 그 모습이 여러분의 본전입니다.
여러분의 본전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낼 수 있다면, 그 다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순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지금 사글세방에 살면서 가구도 없고 TV도 없이 살아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본전인 것을 알면 그게 다 축복이고 순이익인 것을 알 것입니다. 재벌이 되었어도 십자가에 달린 것이 본전입니다. 그러므로 순이익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순이익 분량은 다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 모습이 본전이기 때문에 축복분량을 다 마음에서 버리는 것이고, 그 축복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전하려고 한다든지, 그것으로 기뻐한다든지,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마음을 십자가를 붙잡고 내 본전은 이것이라는 생각과 기도를 통해서, 다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죽을 때에 하나님을 패스오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시는 사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에서와 만나서 야곱이 우는데, 마음속에 자기의 소유를 집어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것도 에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그 들어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고, 그 들어있는 것 때문에 에서를 만날 때에 두려워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마음에 들여놓은 것하고만 관계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존재들은 다 변수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형이 된 상태인데 하나님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유를 지켜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이고, 형도 형 자체를 만나서 좋고 반가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소유를 건드리지 않으니 좋은 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패스 오버 한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모셔 들여야 할 하나님을 지나쳐버리고 계속 마음속에 소유를 갖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오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오버 때문에 나타나는 일은, 땅에서 쓰지 말아야 될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돈을 들이고 애쓰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얻어야 될 하늘이라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버하면서 하늘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야 하고, 엡2:6절에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못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오버하느라고.
영어로 말하면 Fail입니다.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하늘에 못 미쳐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패스 오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패스 오버 하지 않는 길은 십자가로 본전을 찾고 순이익 분을 계산해내세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순이익 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버린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되시고, 하나님을 패스 오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적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미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미팅 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대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반응하면서 이 세상을 아주 효율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패스 오버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있는 나의 본전을 찾게 하시며 축복 분 전체를 투자해서 하나님을 모셔 들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때문에 준비되어진 상태와 사람들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만나고 대응하며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